



시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 이념을 실현하는

 **최준영** CEO

지방공사 초기설립부터 흑자 경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응인지방공사 최준영 사장을 만나 그의 경영방침과 철학 응인지방공사의 미래를 들어보았다.



용인지방공사의 제2대 사장으로 작년 9월 취임한 최준영 사장은 기업의 CEO로서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강조하는 경영인이다. 취임 이후 시민복지증진과 수익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해 적극적인 수익사업의 확대 발굴과 합리적 경영 조기경영기반 구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용인지방공사의 조기 정착을 위해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초기 단계인 용인지방공사가 다른 공기업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데는 그의 경영철학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성공하는 경영자가 되려면 그에 맞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는 경기도 용인시 건설국장, 건설사업단장을 뒤로하고 이곳에 부임할 때 다음과 같은 다짐을 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다.

— 자신만의 독특한 경영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 즉, 인간은 각자 개인의 의미로 존재하나 경영철학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존재성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경영활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영자는 기업의 특별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CEO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직 구조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용인지방공사는 공기업 이념을 실현시킴은 물론 기업경영에 모범을 제시할 것입니다.’

— 행정마인드에 앞서 전문경영 마인드가 중요하며, 출자와 경영을 분리 운영하는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움직이는 시대 • 사업목적의 공익성 · 수익성 등 수준 높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도시기반시설확충,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사업목적 실현하고 기틀을 정립해야 한다.

— 최고경영자는 정책과 전략을 적시에 제시해 구체적 행동강령을 이끌어냄은 물론 순간에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무, 인사, 마케팅 까지 손을 대는 초보적 CEO는 곤란 • 객관적인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업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중대한 오류도 범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용인지방공사의 경영방향

1. 차질 없는 공공 서비스 제공.
2. 고객만족 증진.
 - 고객 없는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듯이 고객만족을 경영의 기본목표로 추진할 계획.
3. 우리의 내부경쟁력을 높여 나아갈 것임.
 -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될 것임.
4. 공사에서 건축하는 아파트가 유명아파트 브랜드와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방공사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역점을 둘 것임.
5. 직원들의 의식구조도 이제는 모든 임직원이 사장이



○ 용인지방공사를 방문해 최준영 사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는 한경보 회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으면 안되며, 나 역시 일하는 사장이 될 것임.

6. 건설 사업에 용인처럼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이 없기에 민간기업보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영을 할 것임.
7.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완벽한 경영 체계를 갖추어 나아갈 계획임.
8. 공기업은 초창기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최소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
9. 투명한 경영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변화할 것임.

BYICO **주요 추진사업**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 주택건설, 개량, 공급 및 임대관리
- 국가 또는 용인시의 위·수탁사업
-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

BYICO **향후 추진방향**

- 서북부지역 :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사업 등 지속적인 정비 추진.
- 동남부지역 : 새로운 사업단지 조성 등 시정방향에 따라 용인을 자족환경도시, 살기좋은 선진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적극 참여 추진할 계획임.

용인지방공사와 최준영 CEO에 거는 모두의 기대와 더불어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

